

목회지평선교육

조선남 목사 // 여학생 목회자평생교육위원, 대림멜로디교회 담임 목사, 교단 교육국장

### 유대인의 메타인지 교육법 하브루타



메타인지란 "자신의 생각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메타인지 능력이 높으면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투자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공부로 예를 들자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업이나 시험이 끝난 후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이다.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은 시험이 끝나면 아주 정확하게 시험점수와 틀린 문제, 왜 틀렸는지를 잘 알고 있다. 오답확인과 오답노트 작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틀린 문항을 분석해서 다음번 시험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틀리지 않는다. 한편은 실수할 수 있지만 두 번은 절대 실수할 안 한다.

중위권 학생들은 시험이 끝나서 점수를 물어 보면 점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점수를 예기해도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 물론, 오답확인하고 오답노트 작성은 생각지도 않는다. 드물게 오답을 확인하더라도 꼼꼼하게 답안분석을 하지 않고 눈대중으로 훑어보는 경우가 많기에 다음 시험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또 틀리게 된다. 중요한 것은 "안다는 것의 의미"를 완벽히 숙지를 통해 본인이 스스로 관련내용에 대해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로 설명하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메타인지를 통해 생각으로 정리된다는 것이다. 말로 표현 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것이다.

이렇듯 메타인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서로 설명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기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교육법이 유대인의 하브루타이다. 하브루타는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 토론, 논쟁하는 것을 말한다.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다 보면 사고가 명확해지고, 자신이 배우는 걸 기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이 3500년 동안 고수한 전통교육법으로 강의와 설명중심의 학습보다 최대 18배 이상의 효율을 나타낸다. 18시간 공부할 양을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공부법인 것이다. 우리는 왜 유

대인의 교육에 대해 여러 미디어에서 논하고 많은 책들이 출간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이유는 간단할 것 같다. 유대인의 인구 비율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에디슨, 프로이트, 로스차일드, 주빈 메타, 우디 앨런 그리고 스티븐 스피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구글 창업자 래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델 컴퓨터 창업자 마이클 델 등이 모두 유대인이라는 사실이다.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5% 역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41% 아이비리그 학생의 23% 미국 억만장자의 40%를 차지한다고 한다.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의 탈무드 기반의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감각을 이용해 기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최근 들어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토론 위주의 교육법이다. 강의 위주의 교육은 아이들에게는 공부의 시간이다. 성향이 본체가 아니다. 성향이 어쨌든 강의 위주의 교육은 받는 주체의 의욕을 떠나 지치게 만들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런 부분에서 유대인들의 교육법인 하브루타는 각광을 받는 게 아닐까 싶다.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그 생각을 말로 할 수 없다면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들을 때는 안다고 하였던 것들이 막상 활용단계에서는 다시 해나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파트너와 함께 공부를 하며,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하브루타 교육법 토론과 논쟁을 통해 논리적 이면에서도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토론의 일상화는 우리나라의 교육뿐만 아니라 기독교교육에서도 그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많은 질문을 유대인과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내고 교육적인 방안을 떠올릴 수 있는 교육법 하브루타는 유대인의 신앙과 건강한 국민성을 갖추게 했다.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대체로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이 사랑에 대하여 전인적 믿음으로써 응답하며, 성령의 도움으로 기독교적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진술로 요약 정리 된다. 그러나 기독교교육은 철저히 종교적이기 때문

에 본성과 본질에 관련된 교육으로 기종이 사회 교육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기독교교육은 일반 세속적인 학부처럼 자연의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며, 그분을 아는 것이며,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을 말한다. 세속철학은 인간에서 출발하여 인간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난다.

기독교교육은 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계시가 아니면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교육은 계시 의존적, 즉 성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성경이 모든 가르침의 시작이며 마침이 된다. 우리는 기독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며, 배우며, 알며, 배운다. 영적인 이들과 교제하게 주는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자.

딤후 3:14-17 말씀을 보면,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기독교교육은 전승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것을 다시 전승하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기독교교육은 자기 인식할 나이에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어려서부터이다. 진정한 앎을 얻기를 훈련한다. 하지 만 현대의 기독교교육은 앎을 상실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교육은 점점 더 반 기독교적 사상과 역사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 더 나아가 교회까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본인이 크리스천이라 말하지만 기독교적 사상과 사상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앎이 없으니 거센 풍파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한 기독교교육에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법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 이는 것을 말할 수 없으면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모르고 있음을 인식할 때 배우는 시작된다.

##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면 이념 편향교육으로 국가 장래 그릇된다

20일 대법원에서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의노조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법원이 있다. 전교조는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합법화되었으나, 2010년 4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해고자를 조합원 자격 유지하는 것에 시정을 요구하였고, 2012년 9월 2차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가 거부하였다.

2013년 9월 다시 고용노동부가 최후통첩을 하였으나 전교조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10월 24일 '전교조가 노조가 아님'을 통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이 '노조아님 통보'에 대하여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2014년 6월 법원은 '전교조가 합법 노조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19년 12월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이것이 공개법원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후 대법원은 3개월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전교조가 '합교육'을 실천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힘쓰고 있느냐? 또 교육의 가치와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교조는 정립 당시의 모습에서 상당히 변질되어 좌편향, 획일적 이념 교육과 특정 사상과 정치관을 심어주는 데 학생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즉,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학생들을 정치적, 이념적 노리개로 전락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전교조의 '합교육'을 벗어난 행위들을 보면, 비록 일부라고는 하나,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김일성·김정일 어록을 교재로 사용하고, 북한 교과서를 따라 하고, 김일성을 영웅으로 하여 북한을 옹호하고, 계기 수업'을 통해 역사 왜곡과 치우친 이념교

육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 집단화된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할 경우, 우리 교단(敎團)의 황폐화와 학생들을 특정 이념과 정파로 오염시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14조 2항에 보면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4항에 보면 "교원은 특별한 정당한 사유를 지시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서울의 모 고교에서는 전교조의 민낯이 드러나는 행위들이 날마다 드러났다. 오죽하면 학생들은 자신들을 '정치적 노리개'로 만들었다고 울분을 토해냈는가? 이에 대하여 해당 교육 당국도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이념과 정파에 연연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교육과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바르고 공정한 법리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말하는 것은, 교육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와 교육 당국의 판단이 올바르게 설정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당사자들의 판단이 흐려진 가운데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만큼이라도 법치의 정의로움과 교육의 대계를 위해서 바른 법률적 판단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교사들도 노동자라는 의식보다, 아직 인격과 실력의 그림이 완성되지 않은 많은 가능성의 젊은 인격체를 만들어 가는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소명(召命)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기 바란다.

- 한국교회언론회

기독교예술

이상열 목사 // (사)한국기독교문화예술원 이사장



### 기독교와 예술

#### 그리스도 주권하에서의 기독교 예술

예술은 몸과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합일, 즉 전인(全人)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순수한 이념보다 성서로움을 전달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종교가 예술에 어떤 영감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종교는 보다 종교적이어야 한다. 종교가 불성실하고 피상적일 때 예술적 작품도 그 빛을 바래게 된다. 그러므로 종교가 예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여간간 예술이란 그것이 영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무런 보탬이 될 수 없는, 한낱 세속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기독교 예술이 한낱 세속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독교는 복음만 전파하면 되고, 그리고 때때로 자선사업으로 봉사만 하면 충분하다는 시고에 기인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그러할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성교 전에 드린 음악, 주일예배묵묵, 설교자의 설교문, 신자들의 믿음에 대한 간증, 기독교 뉴스에 대한 사실 보도, 교회마다의 주일행사, 교회 내부의 정치 등 어느 하나도 예술과 관계하고 있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성서는 어떠한가?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의 형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거하시실 성소를 모세에게 보인 식양대로 지을 것을 명하시기도 하셨다. 그런가 하면 한 때 문명의 구멍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던 것을 흔 짚게 하기도 하셨던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자요, 예술가셨던 것이다.

성서가 예술을 떠나고, 예술을 무시하고 있다면 다윗과 같은 노래도, 솔로몬의 영광도,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생령강과 생령나무도 한낱 세속적인 의미 전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성서의 어느 한 곳도 예술을 떠나 있는

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서가 예술을 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술을 세속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왜 삶은 종교와 관계하는가? 왜 삶은 예술과도 관계하는가?

우리의 삶이 종교와 관계가 있고, 또 예술과도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종교와 예술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느 한 쪽만 관계한다면 종교와 예술은 별개의 것이고, 서로 합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삶이 곧 종교이듯이 삶 또한 예술이다. 우리들 삶을 곧 예술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우리들 삶 속에서 예술을 탄생시켰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종교 역시 우리들 삶이 없이는 형성되어질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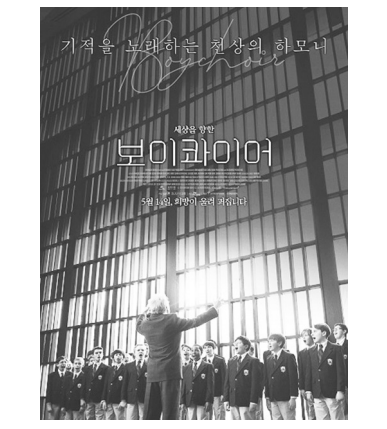
삶이 없는 종교란 불가능하다. 종교의 탄생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세상을 알고부터이다. 아담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그가 죄를 범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그 이전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자식이 아버지를 의식하기 시작하는 때는 어느 정도의 성정이 지나서이다. 이와 같이 종교의 발달도 삶의 성숙과 관계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예술 또한 삶의 성숙에서 비롯되는 삶의 유추를 표명하려는 인간의 표현이다. 그리고 그 유추를 그려보려고 하는 것이 예술이기도 하다. 인간은 그것을 옹고 그릇됨을 가려내려 했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성서가 예술을 금하고 있고, 예술이란 한낱 세속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삶이 종교와 예술에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를 인지하지 못한 데서 오는 우리의 오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5월 가정의 달, 볼만한 영화 더스틴 호프만 주연의 감동성장영화 <보이콰이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꿈도 미래의 희망도 없었던 소년에게 노래는 유일하게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였다. 거칠고 반항적이고 폭력적이기까지 한 스타트(기러기 워레임)를 세상이 적극적으로 밀어낼 때, 그 안에 숨겨진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과 성장 가능성을 꿰뚫어 본 두 스승은 각자의 방식으로 소년에게 다가 다독이고 일깨워 준다. 그렇게 날개가 쭉여 밀을 모르고 추락하던 한 영혼은 다시 세상 앞에 당당하고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게 된다.



야생마처럼 종횡무진하던 스타트 위기와 고난 앞에 정당하게 맞서는 방법을 배우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한 사람의 스승은 키트벨레(더스틴 호프만) 국립소년합창단 단장이다. 진정한 사랑은 따뜻하게 품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갈림길에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따듯한 충고와 차찍질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생각하게 한다.

또한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일깨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이 시대가 간절히 원하는 스승상은 다음 세대 크리스천 리더를 길러내야 할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

변성기가 오면서 더 이상 국립소년합창단에 머물 수 없게 된 스타트는 학교를 떠나 다시 새로운 삶의 출발선에 서게 된다.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음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운 스타트는 기적처럼 잃어버린 가정도 되찾게 된다.

서양의 성스럽고 고전적인 클래식 성가음악을 메인으로 하지만, 중간 중간 잠깐씩 흘러나오는 낭만파 음악들과 비트박스와 랩같은 합성음악도 깨알 같은 묘미다.

한 소년의 성장과 회복의 이야기가 소년들의 순수하고 청아한 클래식 합창곡들과 어우러져 진한 감동을 선사하는 영화 '보이콰이어(Boys in the Girls)'가 지난 14일 개봉했다. 제72회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은 '데드 바이 윌런' (1998)을 비롯해 '달린 글드에 관한 32개의 이야기' (1993), '요요파의 바흐' (1997), '이름들만 만든 노래' (2019) 등 음악영화를 제작해 온 프랑소와 지라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음악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 악보도 읽지 못한 스타트는 그의 재능을 알아본 교장 선생님께서 베이츠의 권유를 받아 최고 실력자인 모이는 미국 국립소년합창단에 우여곡절 끝에 입학한다. 고독하고 쓸쓸했던 소년의 영혼을 위로하는 성가음악의 가사와 아름다운 음악의 매력에 빠져든 스타트는 각고

의 노력으로 노래 실력이 일취월장한다. 집안 배경과 기본기 등 모든 면에서 그보다 월등히 뛰어난 학교 친구들로부터 질시와 따돌림, 괴롭힘도 받지만, 점차 그의 뛰어난 재능과 노력을 인정하며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 합창단의 솔리스트로서 누구보다 촉망받던 자신의 위치가 스타트에 의해 위협받자, 미움과 질투에 사로잡혀 실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를 무너뜨리려는 라이벌도 등장해 긴장감을 더한다.

## 세계선교협의회 제146차 월례회 개최

정기총회 5월 28일 새빛교회에서

세계선교협의회(회장 한규섭 목사, 이하 새선협) 제146차 월례회가 4월 30일(목) 오전 11시 부천 연합교회(전순임 목사)에서 개최하여 1부 예배, 2부 회의 순으로 진행하고 기도과 전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제1부 예배는 최미영 목사(새빛중앙교회)의 인도로 전인교 목사(지구총교회)의 대표기도, 양승수 목사(사랑의샘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양 목사는 요 11:25-27 말씀을 본론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이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다.

이어서 김서경 목사(열방순복음교회)의 봉헌기도, 오광근 목사(새빛교회)의 인도로 참석자들은 △세계선교협의회 발전을 위해서, △8월 동남학원 입학식 준비를 위하여, △민족 복음화와 주사파 적결을 위하여, △회원들의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회장 한규섭 목사(삼동제

일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제2부 회의는 회장 한규섭 목사의 사회로 서기진인숙 목사의 회일절명, 회의록서기 황정희 목사의 전회의록 낭독, 임양회계보고는 전순임 목사, 회계보고 송민자 목사, 총무보고 전순임 목사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각각 보고 했다.

인간도회의로 정기총회를 5월 28일 새빛교회(오광근 목사)에서 열기로 했으며 학교수도공사에 대해서 김경수 목사가 월례회에 참석하면 상세한 내용을 듣기로 했다. 학교에 필요한 선풍기, 의복, 입학식 경비, 식대를 감동대로 한글하기로 하고 8월 동남학원 입학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전년대와 설립과 학교 자체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를 당부하고 회의를 마쳤다.

